

# 감독이야? 배우야?



영화 '한강블루스' 주연-봉만대감독



영화 '나홀로 휴가' 감독 조재현

봉만대 감독 저예산 영화 '한강블루스' 주인공으로 캐스팅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춘몽'엔 감독 3명 등장 '눈길'

배우 조재현 영화 '나홀로 휴가' 메가폰 잡고 감독 데뷔

최근 한국영화를 보면 누가 감독이고 누가 배우인지 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독이 다른 감독의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는가 하면 배우가 직접 메가폰을 잡고 촬영 현장을 지휘하기도 한다.

최근 개봉한 '한강블루스'에서는 봉만대 감독이 주연배우로 이름을 올렸다. 봉 감독은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2003), '아티스트 봉만대'(2013), '뫼:치명적인 유혹'(2014) 등 '19금' 영화로 일가를 이룬 감독이다. '뫼:치명적인 유혹'은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봉 감독은 연기 초짜는 아니나 다른 감독의 영화에 주연으로 연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자신의 영화 '아티스트 봉만대'에서 본인 역으로 출연했고 다른 감독의 영화에 조연이나 특별 출연으로 얼굴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한강블루스'에서 봉 감독은 한강 변에 거주하는 노숙자 무리의 리더 장효 역을 맡았다. 장효는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을 우연한 사고로 잃고서 자신을 책망하며 세상을 등진 인물이다.

애초 주인공 역으로 봉 감독이 1순위로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한강블루스'가 1억 원도 안 되는 저예산으로 제작된 탓에 캐스팅이 쉽지가 않아 봉 감독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봉 감독은 남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정극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손사래를 쳤고, 이 영화를 연출한 이무영 감독은 그런 봉 감독을 한달 가까이 설득해야 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개봉 예정작 '아수라'에도 감독이 나온다. 김성수 감독이 오랜만에 내놓은 누아르 영화 '아수라'에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2006), '숙명'(2008)을 연출한 김해근 감독이 태병조 사장 역으로 출연한다. 그는 극 중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박성배(황정민) 시장과 결탁한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의 건설사 사장으로 전문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을 뽐냈다.

사실 경력만 놓고 따지면 김 감독은 감독보다는 배우에 가깝다. 그는 '장군의 아들'(1990)에서 왕십리 남산 역으로 데뷔해 '게임의 법칙'(1994), '깊은 슬픔'(1997), '남자의 향기'(1998), '파이란'(2001), '라이방'(2001), '블루'(2003), '달콤한 인생'(2005), '무적자'(2010), '고령화 가족'(2013) 등 많은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다음달 열리는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춘몽'에는 영화감독이 무려 3명이나 등장한다.

'뫼파리'(2008)의 양억준 감독, '무산일기'(2010), '산다'(2014)의 박정범 감독,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1), '군도:민란의 시대'(2014)의 윤종빈 감독이 그 주인공.

'춘몽'은 처음부터 세 감독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게다가 세 감독이 자신이 연출한 영화에서 각자가 맡았던 캐릭터로 나온다. 양 감독은 '뫼파리'에서 상훈 역을, 박 감독은 '무산일기'에서 승철 역을, 윤 감독은 '용서받지 못한 자'(2005)에서 허지훈 역을 연기했는데, '춘몽'에 이들 캐릭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의미다.

해당 인물의 캐릭터를 살려 이야기를 만들었고 배우 한예리를 출연시켜 이야기에 새로움을 더했다.

현재 상영 중인 '나홀로 휴가'는 배우가 감독으로 나선 경우다. 김기덕 감독의 페르소나 이름을 알린 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조재현의 연출 데뷔작이다.

첫 연출이다 보니 감독 입장에서 촬영 현장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한다. 예컨대 배우일 때 준비가 다 됐다는 스태프의 말에 현장에 나가면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해 속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부르나' 싶었는데 감독 입장에서 보니 배우가 와서 최종 점검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또 모니터로 배우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연기한 모습을 볼 때 희열을 느꼈는데 본인이 배우로서 연기했을 때 다른 감독도 이런 기분이 들었을꺼라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나홀로 휴가'에 출연한 배우들은 배우 출신 감독에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배우 박혁권은 "다른 감독들은 시나리오나 플롯을 설명하는데, 조재현 감독은 연기에 대해 직접 리허설로 보여주기에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말했다.

# 13년만에 돌아온 '1%의 어떤 것' 알콩달콩 연애 이야기로 재탄생

하석진·전소민 주연...내달 5일부터 수·목 드라마믹서 방영

2003년 전파를 탄 MBC TV 드라마 '1%의 어떤 것'은 일요일 아침에 방송됐음에도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재벌 3세와 중학교 교사의 달착지근한 사랑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말 아침에 억지로 눈을 뜨는 시청자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최정상 배우로 자리매김한 강동원의 매력을 미리 엿볼 수 있었던 작품이기도 했다. 강동원과 호흡을 맞췄던 김정화의 당시 인기도 대단했다.

사람들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있는 '1%의 어떤 것'이 13년 만에 되살아났다. 당시 이 작품을 집필한 현고은 작가가 요즘 세태에 맞게 대본을 손보았다.

안하무인인 재벌 3세가 할아버지 명령으로 평범한 교사와 결혼을 앞두고 좌충우돌하다 사랑에 빠지는 기본 열거는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작사 가담미디어의 전지혜 기획이사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당시에는 12세 아침드라마 등급에 맞게 가족극 색깔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원작 소설처럼 로맨스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리메이크작 주인공은 하석진과 전소민이다. 32살의 호텔 상속자 이재인 역의 하석진은 "어렵게 인터넷을 찾아서 다시 봤는데 정말 알콩달콩한 모습이었다"면서 "당시 주인공들처럼 연기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6살 연하 초등학교 교사 김다현 역의 전소민은 "하석진과 연기하는 게 재미있었다"면서 "환경 분위기가 좋아 촬영 내내 연애하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사전제작으로 완성됐다. 다음 달 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9시에 케이블 채널 드라마믹스를 통해 방송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00 수목드라마 (공항 가는 길)(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12	00 KBS 뉴스12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소꿉왕 루이)(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00 루키(재)	3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5 TV 블로그 품지락
2	00 평창 동계올림픽 D-500 특집 (그녀들의 뜨거운 여름)(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0 시사기획 창(재) 55 튜튼생활제초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어서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애슬론 풋볼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24 55 공평 가는 길 특별판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공항 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소꿉왕 루이)	00 수목드라마 (칠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5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24 50 메이저리그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키사 마이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르웬조리드래일 빙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동어 두부조림과 채소 샐러드)	15:35 오솔상자(2)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레이디버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두다다콩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 e	16:45 땀과 눈물 유지원 1~3(재)
07:45 꼬마버스 타요	12:45 EBS 초대석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08:00 땀과 눈물 유지원 1~3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7:45 꼬마버스 타요(재)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3:50 그림을 그려요(2)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09:00 주사위 오징어 퀴비주	13:55 코코몽(3)(재)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15 시계마을 타기톡	14:25 책과 땅	19:30 EBS 뉴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55 모피와 친구들	19:50 명의(재)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5:05 두기담편대	20:40 다큐 오늘
		(극한 속, 반짝이는 옥)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8일 (음 8월 28일 癸丑)
子	48년생 관행을 중시하고 순리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60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다 보면 길정을 부르게 된다. 72년생 상대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84년생 효과를 보지 못하리라. 행운의 숫자 : 74, 69	42년생 개별적으로 경중을 따져보아야 할 형편이다. 54년생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66년생 가급적 빨리 시작해야만 겨우 끝맺을 수 있는 바탕이다. 78년생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행운의 숫자 : 70, 41
丑	49년생 병행하여 나아가도 무리가 없다. 61년생 개별적인 취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협수가 유용하다. 73년생 목적에 부합하는 구상과 행보만이 성사에 일조하는 의미가 있다. 85년생 느낌이 여의치 않다면 중도에 내려놓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0, 77	43년생 신중하게 처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55년생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느니라. 67년생 용기가 있어야 한다. 79년생 선수를 잘 가리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8, 26
寅	50년생 예상 밖의 커다란 변수가 보이니 대비하라. 62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74년생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니 처세에 신경을 써라. 86년생 환경이 바뀌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17, 99	44년생 설마 했다가 크게 당황할 수도 있는 면모로다. 56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본다. 68년생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80년생 민첩한 순발력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65, 46
卯	51년생 착수만 한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니 일해도 된다. 63년생 핵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야겠다. 75년생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87년생 자신이 기대했던 바보다도 호과가 배가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3, 42	45년생 진행되어 왔던 바를 잘 추스르다면 자족할 수 있다. 57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69년생 다시 한 번 검토한다면 허점이 보일 것이다. 81년생 조심으로써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3, 03
辰	40년생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는 도량이다. 52년생 길흉이 교차하니 행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64년생 원대한 시각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76년생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88년생 문제점을 청산 하자. 행운의 숫자 : 37, 51	46년생 드디어 확실하게 국면을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58년생 귀를 기울이면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70년생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과감하게 결정하고 용기 있게 진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84, 93
巳	41년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53년생 지속적이어야만 하느니라. 65년생 나서야 할 때 망설이면 신망을 잃게 되는 법이다. 77년생 전혀 개의치 말라. 89년생 유동적인 폭까지 감안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9, 57	47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답을 얻을 수 있다. 59년생 순간적인 착오가 많은 손실을 부르지 않을까 두렵다. 71년생 과신은 소모적인 행국을 조성할 뿐이다. 83년생 파생된 결과는 미래에 대한 교두보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54, 49